

서부권

목포 밤거리 음란전단지 '몸살'

신도심 등지 주택가까지 무단 살포... 청소년 탈선 우려

목포 하담 신도심에 음란성 불법 전단지 무단 살포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음란성 전단지 이전에는 상가와 유흥업소 밀집지역에 마구잡이로 배포되던 최근 들어 주택가까지 살포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청소년들이 많이 찾는 목포시 죽동 '차 안다'는 거리와 하담 '장미의 거리', 평화광장까지 음란성 전단지가 무차별 뿌려지고 있어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무단으로 살포된 전단지는 명암크기에서 16절 크기로 가슴을 보이게 제작하는 등 성매매를 위해 다양하게 제작되고 있다. 이처럼 주택가에서 차량, 청소년 광장까지 무차별 살포되는 낯 뜨거운 음란성 전단지 때문에 청소년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들은 걱정이 많다. 시민 서종택(하담 신동동)씨는 "호기심 많은 청소년이 음란성 광고물을 보았을 때 어떠한 생각을 하겠나"며 "관계 기관에서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 강력하게 처벌해 줄 것"을 호소했다. 또 특수임무수행자회에서 지난 달 목포시에 음란성 전단지 무단배포를 근절시켜 줄 것을 촉구하면서 자체 수거에 나서기도 했다. 현재 목포시와 목포경찰서에서 단속을 나서고 있지만 성매매 업주들이 아르바이트생을 이용해 전단을 살포하고 일명 '대포 폰'을 사용하고 있어 이들을 추적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목포시와 경찰 관계자들은 "집중 살포되는 야간 시간대에 맞춰 지속적

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성매매 업주들은 전단을 배포한 만큼 효과가 있기 때문에 교묘하게 단속망을 피해 지속적으로 불법을 저지르면서 단속기관과 숨바꼭질을 하고 있다. 시민들은 "음란성 전단지에 대한 전담반을 조직해 24시간 시스템을 확충하고 감시해 강력한 처벌을 하지 않을 경우 전단지 살포 근절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행법상 불법 전단지 배포자는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가 적용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미만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지만, 실제는 대부분 벌금 100만원 미만의 가벼운 처벌에서 끝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서부취재본부=김병관기자 dss6116@



보길도 청각 가을 일광욕

안도 보길도 부둣가에서 주민들이 김장 재료 중 하나인 청각을 말리고 있다. 청각은 비타민과 무기질이 풍부해 성인병과 비만을 예방하는 최고의 웰빙식품으로 주목받고 있다. <안도군 제공>

섬마을 어르신들 "경사났네"

안도 청산면 지리 노인복지센터 준공

안도군이 도서로 형성된 지리적 특수성으로 각종 사회복지서비스가 육지·도시권보다 상대적으로 소외된 생활을 하고 있는 섬지역 노인들을 위해 건강과 휴식·여가 등 복합기능의 '도서형 경로복지센터' 건립과 여가 프로그램 운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안도군은 총 356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1단계(2007~2010년)에 30개소, 2단계(2011~2017년)에 50개소 등 모두 80개소를 단계별로 추진, 건립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106억원을 들여 23개소를 준공, 운영중에 있으며 11개소를 신축하고 있다. 안도군은 최근 청산면 지리에서 김중식 군수와 조인호 부의장, 김동삼·김정순·김주·최찬술·박종연·신의준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로복지센터 준공식을 가졌다. <사진> 민선 4·5기 김중식 안도군수의 공약사항인 도서형 경로복지센터는 지난 2007년부터 본격 추진, 개소당 3억~5억원을 들여 생활

체육실과 물리치료실·경로식당·찜질방·다용도실·장례식장 등 맞춤형 시설을 갖춘다. 경로복지센터 운영위원회를 통해 운영되는 '도서형 경로복지센터'는 월 100만원의 운영비가 군비로 특별 지원되며, 각 읍·면 여가프로그램 지도자들이 주 5회 여가 프로그램을 진행, 섬지역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일조하고 있다. 전국에서 최초로 안도군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도서형 경로복지센터'사업은 앞으로 타 지자체에도 확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김중식 안도군수는 "중앙정부에 건의, 각 읍·면별 100여 이상 되는 도서부락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경로복지센터 및 경로당이 단순한 사랑방 수준에서 섬지역 노인들의 여가생활 만족감을 배가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종합적인 여가 시설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정은조기자 ejchung@



삼학도 석탄부두 목포신항 이전

설계비 10억 내년 예산 반영...2014년 이후

목포 삼학도 석탄부두가 오는 2014년 이후 목포 신항으로 이전된다. 목포 지방해양항만청은 목포신항 부 예산안에 반영돼 이전사업이 타력 발을 밟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실시설계를 포함한 공사 기간은 3년이며 이전은 2014년 이후에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목포시 삼학도 공원과 사업에 포함

된 삼학도 석탄부두는 오는 2011년까지 대부분 2단계 부두로 이전하기로 했지만, 영암군의 반대 등으로 이전 장소를 찾지 못해 표류해 왔으며 최악의 경우 부두를 폐쇄하고 다른 항구로 이전하는 방안까지 검토됐다. 목포 항만청 관계자는 "신항으로 이전되면 연간 150억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이성진기자 sslee@

명량대첩비·비각 12월 복원

해남군, 원설립지 기초 유구시설 발견



해남군이 명량대첩비의 원설립지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명량대첩비를 세웠던 원설립지 기초 유구시설<사진>이 확인됐다. 3일 해남군에 따르면 원설립지로 추정되는 옛 문내면 노인당 자리에 대한 철거작업을 진행하는 도중 성곽 전문부인 고요구 도 문화재전문위원에 의해 명량대첩비의 기초유구시설임이 확인됐다. 발견된 유구시설은 장축 2.33m·단축 1.54m·깊이 25cm로 자연석의 안반을 깎아 명량대첩비를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명량대첩비는 1597년(선조 30년) 9월 정유재란 당시 해남과 진도 사이 울돌목에서 왜군을 상대로 승리를 이끈 이순신 장군의 공적을 기리고자

1688년(숙종 14년) 전라우수영서 동문부에 세워졌다. 하지만 1942년 일제에 의해 강제 철거돼 서울로 옮겨졌으며, 해남지역 주민들이 1950년 '명량대첩비 이전 추진위원회'를 조직해 현재의 위치인 학동 충무사에 비각을 만들고 경북군 근처인 뒤뜰에 방치돼 있던 비를 다시 옮겨 세웠다. 해남군 관계자는 "명량대첩비 원설립지의 기초 유구시설이 확인됨에 따라 원 설립지의 역사적 정통성을 되찾을 수 있게 됐다"며 "오는 12월 무렵이면 원설립지에 명량대첩비와 비각이 복원돼 본래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박희석기자 dia@

목포서 '1000인 강강술래'

15~17일 행사... 7일까지 참여시민 모집

목포에서 문화의 날 기념행사로 1000명이 참여하는 강강술래가 펼쳐진다. '2010 문화의 날 행사 추진위원회'는 목포 문화의 날 행사의 하이라이트가 될 시민 길놀이 '1000인 강강술래'에 참여할 시민 강강술래단을 모집한다. 이번 행사는 오는 15~17일 '우리 문화·남도문화 열고, 맺고, 풀다'를 주제로 목포 삼학도와 오거리, 노적봉 등지에서 다채롭게 열린다. 특히 1000인 강강술래는 오는 16일 노적봉을 출발해 오거리→선항→삼학도까지 원도심 시가지에서 펼쳐진다. 시민 길놀이에는 진도·해남·신안·영암군 지역 강강술래보존회가 참여하고 서남권

문화재단, 목포 시민으로 구성된 '시민강강술래단'이 함께 한다. 오는 7일까지 20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자세한 사항은 '문화의 날 행사 추진위원회' (061-270-8603번)로 문의하면 된다. 최종 선정된 '시민 강강술래단'은 극단 '갯돌'의 지도로 오는 8일 목포 공설운동장에서 강강술래 소리를 배우고, 손잡고 뛰기 등의 기본기를 배운다. 김영현 문화의 날 추진위원장은 "서남권 전통 예술의 상징과도 같은 강강술래를 행사 하이라이트 아이템으로 선정해 시민이 함께 참여하고 지켜보는 행사로 성대하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임영춘기자 lyc@

신안 천일염 판매 앞장

郡-道새마을지회 협약

신안군과 전남도새마을지회는 지난 1일 신안 천일염 판촉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신안군은 새마을지회를 통해 해 연간 1000t(20kg 들이 5만 가마)을 판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새마을지회는 신안 천일염을 전국의 새마을협의회 가족 등에게 홍보하고 판매에 앞장서기로 했다. 신안군 관계자는 "대기업 투자 유치를 통해 도도와 신의 면면에 천일염 생산자가 참여하는 법인을 설립하고 신안 천일염 명품 브랜드화에 온 힘을 쏟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신안지역은 전국 염전 면적의 57%와 생산량 62%를 차지하는 천일염 주 생산지이다. /서부취재본부=조원기자 wncho@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부동산 거래 전문회사 ASSET KOREA since 2005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Real estate listings table with columns for location, area, price, and agent info.

토지 매매. 위치: 나주시 노안면 오정리. Listings for land parcels with details on area and price.

금당 공인중개사. Listings for real estate with details on location, area, and price.

010-8337-1055. 고흥 조용한, 숲속에 바닷가, 황토 전원주택.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a 300sqm house.